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사항을 같은 조례 제4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 2건

| 연번 | 지정사항   | 문화유산명                        | 수량 | 소재지                   | 소유자(관리자)       |
|----|--------|------------------------------|----|-----------------------|----------------|
| 1  | 문화유산자료 | 선암사 아미타여래회도<br>(仙巖寺 阿彌陀如來會圖) | 1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br>백양산로138 | 대한불교조계종<br>선암사 |
| 2  | 유형문화유산 | 선암사 신중도<br>(仙巖寺 神衆圖)         | 1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br>백양산로138 | 대한불교조계종<br>선암사 |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시보 고시일

6.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 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전 화 : 051-888-5082 / 팩스 : 051-888-5069

-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 전자메일syjs1016@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사유 1부. 끝.

□ 문화유산자료

- 명 칭 : 선암사 아미타여래회도(仙巖寺 阿彌陀如來會圖)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138
- 수 량 : 1점
- 제작연대 : 1918년
- 제 작 자 : 완호낙현(玩虎洛現), 시찬(施讚)
- 재질·형상 : 면바탕에 채색(綿本彩色) / 족자
- 규 격(cm) : 화폭\_세로 180.0cm, 가로 211.8cm  
각폭(향좌~향우)\_91, 105, 24.2cm(3매)

○ 지정사유

선암사 아미타여래회도(仙巖寺 阿彌陀如來會圖)는 화기를 통해 1918년 동래군 서면 금정산 선암사에서 조성하여 대법당에 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방형의 화폭에는 아래에서 높이 솟아오른 연화좌대 위에 결가부좌로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한 여래좌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에서 협시하고, 뒤쪽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배치되었다. 그 주위로는 여의주를 갖춘 관을 쓰고 합장한 모습의 용왕 2위, 녹색 두광을 갖춘 아난과 가섭의 두 존자, 그리고 사방 가장자리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본존을 중심으로 외곽에 배치되었는데, 각각 칼과 비파, 탑, 용와 여의주 등의 지물을 들고 동서남북을 외호하고 있다. 특히 항마촉지인을 결한 본존 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석가여래로 해석되지만, 이 불화에서는 좌우 협시보살을 백의관음과 대세지보살로 배치한 것으로 볼 때 아미타여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백련화 지물은 완호의 통도사 사명암 석가불도(1917)나 부산 청량사 석가불도(1918), 연등사 석가불도(1924) 등에서 문수와 보현보살의 지물로 묘사된 반면, 선암사 불화에는 대세지보살과 문수보살의 지물로 반영되어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살 뒤쪽으로 배치된 2위의 용왕 표현 역시 상당히 이색적인 조합이다.

선암사 아미타여래회도(仙巖寺 阿彌陀如來會圖)는 제작시기와 봉안처, 연화질 등이 명확한 작품으로, 근대기 조성된 수화승 완호의 초기작으로서 의미와 전통 답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요소들을 더하여 독창적인 도상 구성과 해석을 창출한 화승의 특징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 유형문화유산

- 명 칭 : 선암사 신중도(仙巖寺 神衆圖)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138

- 수 량 : 1점
- 제작연대 : 1870년
- 제 작 자 : 원선(元善) 원성(元愷) 영안(永鴈) 민관(敏瓘) 봉전(奉典) 원규(元奎)
- 재질·형상 : 비단바탕에 채색(絹本彩色) / 족자
- 규 격(cm) : 화폭\_세로 172.0cm, 가로 132.0cm  
 각폭(향좌~향우)\_32.0, 38.3, 38.0, 36.0cm(4매)
- 지정 사유

선암사 신중도(仙巖寺 神衆圖)는 화기를 통해 1870년 선암사에서 조성, 봉안된 불화로 원선(元善)을 수화승으로 다섯 명의 화승이 동참하여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운포 및 동래부 다대면, 사하면괴정, 두중리 등 지역민이 시주발원한 불화라는 역사성이 확인되는 작품이다. 화면은 위아래 2단으로 구분하여 천부와 신장부를 상하로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도상은 병풍을 배경으로 중심 인물들을 배치한 상단과 구름으로 구획지워 권속을 배치한 하단으로 나뉘어 묘사했다. 먼저 상단에는 향좌측에 제석천과 향우측의 범천, 중앙에는 위태천이 자리하며 뒤쪽에는 공양물을 든 천녀가 좌우에 시립해 있고, 아래쪽은 천부계 일월존자 등 명왕 6위와 금강 2위 등 총 8위의 권속이 일렬로 묘사됐다. 구름무늬 아래쪽의 하단에는 위태천의 권속인 용왕 1위와 보검을 손에 든 신장 5위를 일렬로 배치하여 화면에 배치된 존상은 총 19위이다.

선암사 신중도(仙巖寺 神衆圖)를 제작한 화승 원선(元善)은 1869년 <범어사 사천왕도>를 제작했으며, 현존 작품이 희소한 그의 화풍과 행적을 보여주는 기준 작품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특히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신중도 도상의 한 유형으로, 범·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시대양식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19세기 후반 신중도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